

깨달음의 빛에 물들고 싶어 산으로 간 사람들의 봄 · 여름 · 가을 · 겨울

비워야 한다. 버려야 한다.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를 지탱해온 것이라 여겨지던 모든 생각과 기준과 신념, 그러한 것들이 나를 먹여 살렸다는 이제까지의 믿음과는 달리, 그러한 것들이 참나를 가리고 있었다. 비우고 버리면 더 충만해지는데 그걸 못 버리다니. 아니, 버릴 것도 없다. 얻고자 할 것도 없다. 이대로가 그토록 찾던 나임을 알면 될 것 같다. 이 자각이 좀더 깊어지면 무언가 만나게 될까. 본래의 나에 눈뜨고 싶다. 최초의 나를 만나고 싶다. — 본문 중에서

정과 스님 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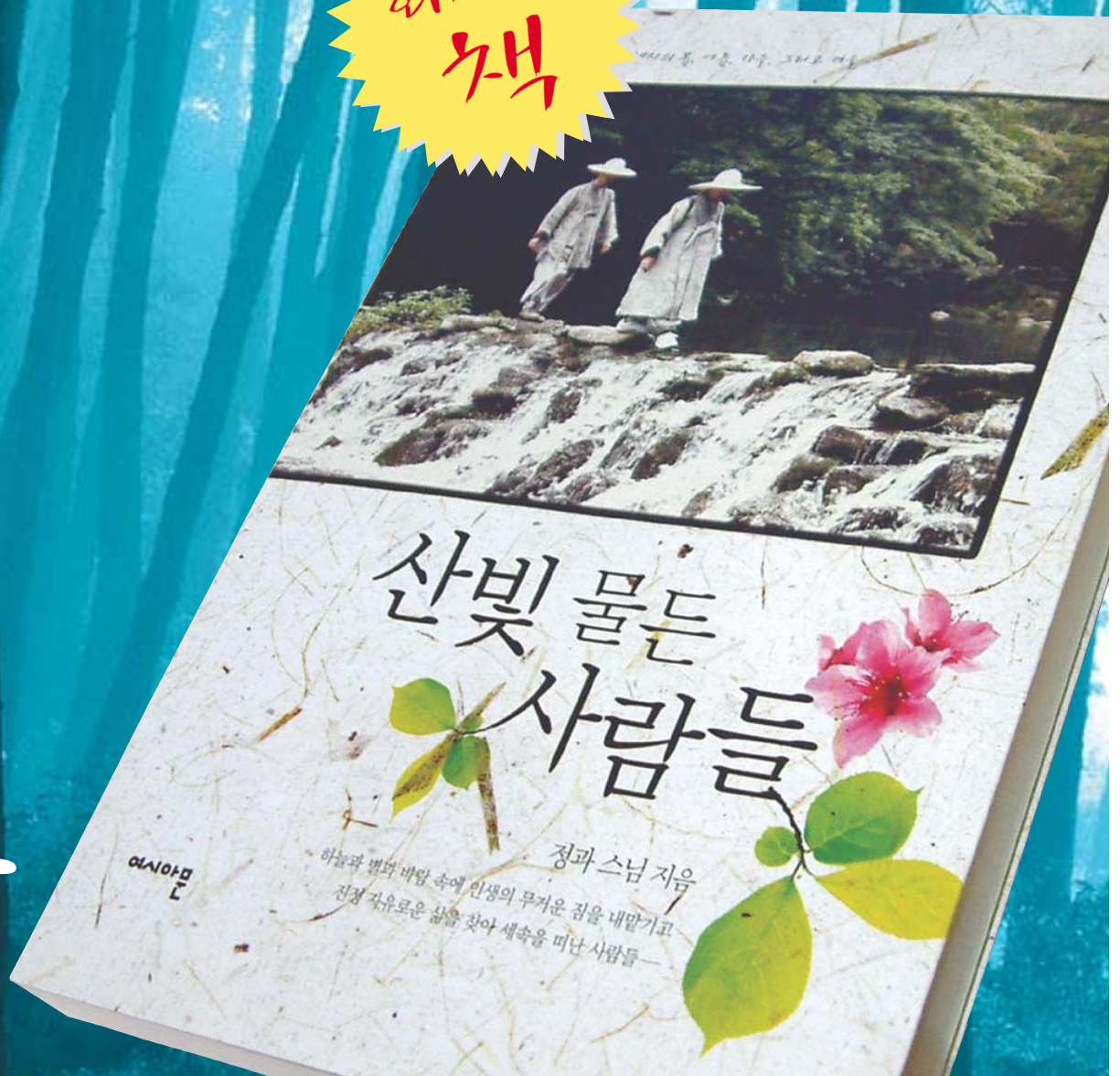
산빛 물든 사람들

▶ 신국판 / 302쪽 / 값 10,000원
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
책방 여시아문 :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(연수원) 연수동 101호
Tel: 021737-0696(영업부), 0212004-8225(출판부), Fax: 021737-0696

여시아문

십삼제의
추석



학림사 오등선원 대원스님의 명강설

반야심경

팔만사천 범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,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,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 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.

한암대원 선사 강설 / 현대불교신문사 역음 / 신국판 / 440쪽 / 값 15,000원

●●● 김중서 박사의 자녀교육 길잡이 ●●●

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

어찌해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? 불교계의 원로 교육학자가 제시하는 불자의 길, 부모의 길, 스승의 길—

김중서 지음 / 신국판 / 232쪽 / 값 9,000원

서울대 출신 지허 스님의 선방 이야기

선방일기

『선방일기』는 1973년 봄 『신동아』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'지허知虛'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.

지허 스님 지음 / 46판 / 136쪽 / 값 5,000원

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반겨 줄

작대기

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작대기처럼 쪼다다 남겨놓고 간 인생의 '깊은 맛'을 속삭이는 이야기들, 68편이 담겨져 있다.

글·정용철 / 그림·고암 정병례 / 46판 / 164쪽 / 값 9,000원

★★ 당신을 위한 대행 큰스님의 범문집 ★★

삶은 고퍀가 아니다

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,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,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, 어떻게 불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쉽고 명쾌하게 보여준다.

대행 스님 범어 / 해원 스님 역음 / 신국판 / 396쪽 / 값 9,000원

중국 불교를 일으켜 세운 허운화상의 스테디셀러

참선요지 參禪要旨

참선 수행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심자들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 참선수행의 바른 길라잡이.

허운 화상 범어 / 대성 스님 역음 / 280쪽 / 값 5,500원